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0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5일 (음력 10월 18일) 화요일

나주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조건부' 준공 승인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대책위 '불승인 요구' vs 나주시, 불승인시 소송 등 우려 '승인'

나주시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삼읍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Solid Refuse Fuel·비성형 고품계기물 연료)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준공) 승인을 4일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유 없이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고 관련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따른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당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혁신도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정부의 '자원 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 계획에 의해 SRF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섰다.

하지만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품계기물 사용시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집단 반발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대책위)'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혁신도시가 조성도 되기 전에 일부 읍·면 주민만을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가 급하게 이뤄져 절차 현재 혁신도시 입주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이날 건축물 사용 승인이 이뤄진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14년 4월 LNG침투부화 보일러 시설 착공에 이어 2015년 5월 설계변경을 거쳐 SRF 발전 시설을 착공, 최근 준공해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난방용 열원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



4일 조건부 건축물 사용 승인 허가가 난 나주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등을 위해 건립된 발전소 건설에는 2412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집단 주거시설 인근에서 쓰레기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다이옥신 발생 등 대기 환경오염 문제를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주민 대책위는 타 도시처럼 열병합발전소에 100% LNG(천연가스)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나주시에는 '건축물 사용 준공 승인 불허'와 당초 사용 연료가 성형RDF에서

비성형SRF로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아 연료 사용 승인도 불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는 나주시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건축물 사용 승인의 경우 나주시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에도 불허할 경우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체결된 계약조건에 따라 1일 2억5700만원을 지체 상여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최대 변상금액은 SRF발전설비 건설 계

약금액인 131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263억원을 롯데건설이 배상해야 하며, 롯데건설은 다시 나주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법과 행정적 절차를 뒤로하고 주민 대책위 요구를 따를 수도 없고 준공 승인을 거부할 명분도 찾을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한 나주시는 이날 87가지 전체 조건을 명시해 조건부 사용 승인 결정을 내렸다.

나주시가 명시한 전체 조건은 ▲2009년 업무협약 합의서에 근거해 광주권 비성형 연료 반입·사용금지 ▲난방공사가 약속한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대기 오염물질 유해성 검증 ▲나주시 고품계기물 사용 승인 후 SRF보일러 가동 ▲연료 저장동 악취문제 해결 ▲주민협력사업 협의 등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불허 처분을 복수의 변호사들과 검토한 결과 한결같이 법률상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신분상 불이익과 개인적으로 변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주민대책위 주민이 페이스북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나주SRF 열병합발전소는 2014년 환경부와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현행법보다 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또 '주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환경영향 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운전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윤규 기자



충성?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지난 달 29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지남 소속 한선교 의원에 대해 "망둥이가 뛰니 꿀뚜기가 뛰든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편에 들어와 아무런 문제감도 없이 스텝들이 나일의 키며 허송세월하다니 심심했다 보따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절체절명 위기에 처한 제10당 원내대표 자리가 못먹을 감 팔러나 보는 식으로 출마할 수 있는 지리인가"라고 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달 28일 한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며 '수석대변인까지 북당파로 임명해 북당파와 홍 대표 간에 손익계산이 끝난 듯하다'고 주장하자,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며 수석대변인직 사퇴를 선언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장제원



한선교



장제원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물관리 현장설명회 개최



"효율적 용수관리 위해 최선"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지사장 정중환)는 지난 달 30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운영대위원, 수리시설관리원, 지역농어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물관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농업인과 유대·협력체널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는 2017년 물관리현황 및 한해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농업생산력증대와 깨끗한 농

촌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생산기반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홍보도 이어졌다.

정중환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극심한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용수 관리에 최선을 다한 수리시설감시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가 농업인·지자체·공사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용수관리를 위하여 농업인과 지자체 등 다양한 협력체널을 구축하여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장흥=김종민 기자

보성군 재정명 천년맞이

제15회

보성차밭

Boseong Green Tea Field Light Festival

빛 축제

2017. 12. 15. ~ 2018. 1. 14.

한국차문화공원 | 율포솔밭해수욕장

Korean Tea Culture Park | Yulpo Beach

▶ 개막식

2017.12.15(금) 17시 30분

- 점등식 및 보성판타지 공연

▶ 주요 볼거리

차밭 빛물결, 은하수터널
디지털 차나무 라이팅쇼
가든판타지 공연
파이어 판타지 공연
율포솔밭낭만의거리

* 입장료는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보성군